

부산시내 일부 대학생들의 노인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김 수 혜·김 병 성·박 형 종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목 차

I. 서 론	V. 결 론
II. 연구방법	VI. 제 언
III. 연구결과	참고문헌
IV. 고 찰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고도로 발달된 산업화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학의 발달과 보건지식의 향상 및 식생활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960년의 726,000명에서 1990년 2,144,000명으로 이 기간중 1,418,000명이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3,168,000명, 2010년에는 4,688,000명 그리고 2020년에는 6,333,000명으로 예상되어 1990년에서 2020년사이에 4,189,000명의 노년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¹⁾ 1990년도의 선진 산업국가 노인 인구 비율을 보면 스웨덴 18.3%, 서독·영국 15.5%, 미국 12.6%, 일본 11.9%로 이들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의 비율은 4.7%로 낮지만,²⁾ 평균수명 또한 1985년에는 69.0세였으나 2000년에는 74.3세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다.³⁾

또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 성장이 가져온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경로 및 효를 기본으로 한 기존의 가치 체계가 서서히 붕괴되고 새로운 사회질서가 형성되면서 충격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와같은 충격에 대한 극복과 새로운 질소에의 적응은 기존질서에 익숙한 노인일수록 어렵게

되었다. 젊은이들은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민감하게 대처해가고 있지만 노인들은 변화를 꺼려하고 있고, 노년층의 전통적인 가치관은 젊은이 위주의 새로운 가치관에 부딪혀 서로 마찰을 빚고 있다. 또한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핵가족화 현상으로 노인부부만의 단독세대가 더욱 증가되고 있다.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속도, 도시화 및 핵가족화, 노부모 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한²⁾ 이상과 같은 인구의 노령화와 급격한 사회변동에서 야기되는 세대간의 심각한 갈등, 날로 증가하는 핵가족화 현상으로 노인부양에 대한 문제는 현재보다 미래에 더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⁴⁾

노인부양의 유형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면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으로 나눌 수 있다. 공적부양은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부터 서구사회에서 발달한 사회보장제도나 공적부조에 의한 사회적 수준의 부양이며 사적부양은 노인을 부양하는 주체가 가족, 친족, 친지 또는 본인인 개인적 수준의 부양이다. 가족부양은 사적부양의 범위에 속하며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어온 가장 중요한 부양 형태로 경제적·정서적 및 서비스 부양이 동시에 공급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가장 이상적인 부양형태로 평가되고 있다.⁵⁾

전통적인 한국가족은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부계가족을 위주로 가족 중심 생산과 소비체계를 유지해 왔다. 즉

장남은 부모를 모시면서 가문의 전통을 이으며 차남은 결혼과 함께 분가형태를 이루면서 친족관계를 유지하는 씨족사회가 발전되었다. 이러한 가족중심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은 산업화에 따라서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요즈음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아직도 특별한 대안이 없고 노인부양의 근본은 가족부양임을 감안할 때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관계, 사회·문화적인 전반여건 등을 반영하고 현 시대에 적합한 가족부양 체계를 개발하여 계속 유지·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¹⁰⁾

따라서 본 연구는 기성세대에 속하지 않는 젊은 남녀 대학생들의 1)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2) 자신의 노후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3) 노인에 대한 태도와 자신의 노후에 대한 태도에 관련성이 있는지, 또한 4) 각 변수에 따라 대학생들의 노인부양 의식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려고 한다.

2. 노인부양의 정의

일반적으로 노인의 부양은 세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째, 노인이 필요로 하는 금전이나 물질을 제공하는 경제적 부양과 둘째,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인의 고독감과 불안을 해소하고 인격적, 정서적 욕구의 충족을 제공하려는 정서적 부양이 있고, 셋째로 마음을 편안하게 시중들어 노인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가사, 휴욕, 목욕 등의 보살핌과 시중, 병간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부양이 있다.^{5,11)}

1) 경제적 부양

노인들이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에 의한 경제적인 부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이 좋은 노인들로서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또한 이를 돋기 위한 직업, 재훈련의 제도와 적성에 알맞는 직업을 재분배받을 제도적인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신체가 노쇠해서 그이상 더 일을 할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도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연금이 지급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¹²⁾ 五島貞次는 「노인에게는 빈곤, 질병, 고독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는 하나 노인문제 해결의 열쇠는 경제적 생활의 안정에 있다」고 강조하였다.¹³⁾ Rosow는 「젊은세대는 가장 밀접한 가족 특히 우선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라고 했다.¹⁴⁾

가족주기(Family cycle)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년부부가 노부모 부양을 해야 하는 시기는 그들 자녀들의 교육비와 주택부금을 지불해야 하며, 자녀의 결혼 비용과 자신의 노후 생계를 위해 저축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노부모의 경제적 부양을 성실히 수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¹⁵⁾

2) 정서적 부양

세대간의 상호 자립성이 확보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상호간의 역할이 피차 만족스러운 협력관계로 발전되면 애정과 신뢰에 의한 아름다운 가족관계가 형성된다. 영국의 노년 심리학자 Terna 교수는 혼자는 노인들은 이미 누구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불안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가족들에 의한 정기적인 방문을 받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 친척들, 과거의 친지들과의 교류도 필요하고 노인정, 노인학교 그밖에 취미를 같이 하는 노인들끼리의 그룹 또는 조직체에 참가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족 또는 사회에서 협력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노인회의 회원들이 만드는 수공제품을 파는 점포를 개설한다던가 할머니들이 그들의 요리솜씨를 자랑하기 위한 할머니 식당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도 노인들의 사회참여에의 한 방법이다.¹²⁾

한국갤럽조사(1984)에 의하면 54%의 한국노인이 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여, 일본의 31.8%, 미국의 39.7% 등 노령화 사회에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높게 나타났다.¹⁶⁾ 이는 유년기부터 개인적 독립생활이 습성화된 서구 노인들은 고독이나 소외감을 이겨내는 의식이 어느정도의 여유를 보일 것이나 한국노인은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몸에 배어 있으며 부모가 전통적 가치관에 따라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과 실제로 받게 되는 대우 사이에 차이가 있어 고독이나 소외감이 심각하게 작용함을 의미한다.¹¹⁾

3) 서비스 부양

식사, 목욕, 대소변 등의 시중을 받으려면 역시 별거보다는 자식들과 동거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절대 다수가 동거하는 가족에 의해서 시중을 받고 있다.¹²⁾ 시중을 드는 사람으로서 며느리가 34.8%로 가장 많았고, 기타 이웃이나 친지 등이 22.1%, 아들이 16.8%, 배우자가 12.4%로 나타

났으며, 1.5%에 해당되는 노인에게는 전혀 시중드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5)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73.0%가 최소한 한가지 이상의 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상에서 거동을 못하는 노인도 전체 노인의 3.6%를 차지했다. 병상에 있는 노인의 원인 질환으로는 중풍이 50%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전체적으로는 신경계 및 감각기계 질환이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¹⁰⁾

3.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대화와 더불어 교육의 대중화 및 교육수준의 향상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고, 가치관이 점차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앞으로 노인부양 문제를 해결해야 될 젊은 세대인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견해와 태도, 노인부양 의식도를 분석해봄으로써 노인부양 체제 중 노인 건강에 기본적 바탕을 둘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가족부양 체제의 유지, 발전의 가능성을 예전하며 노인복지 대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려 한다.

그중 노인부양 의식도의 분석을 위하여 노인부양과 관련될 것으로 여겨지는 변수들에 따라 노인부양 의식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에 대해 검정하였다.

- 1)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노인부양 의식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대학생들의 가정의 경제상태에 따라 노인부양 의식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 대학생들의 노인과의 동거경험 유무에 따라 노인부양 의식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4) 대학생들의 출생순위에 따라 노인부양 의식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5) 대학생들의 가정내 고부간의 관계에 따라 노인부양 의식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6)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수용태도에 따라 노인부양 의식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7) 대학생들의 향후 부모님과의 동거희망 여부에 따라 노인부양 의식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표본을 부산시내 일부 남녀 대학생들에만

제한하였으므로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시내 6개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년은 1, 2, 3, 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남자 대학생 179명과 여자 대학생 186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총 3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는 1992년 11월 9일부터 1992년 11월 23일까지 본 연구 목적을 위하여 고안 작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실시되었다. 설문지 배부는 본 연구자가 배부한 500부의 설문지 중 381부가 회수되어 응답율은 76.2%였고, 그 가운데 응답이 불충분한 16개의 자료를 제외한 365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어졌다.

3. 자료분석 방법 및 검사 도구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P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χ^2 -test에 의하여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학생들 자신의 노후에 대한 태도의 각 변수별 유의도, 그리고 두 변수간의 관련성 여부를 검정하였다. 노인부양 의식도의 신뢰도(reliability) 검사에는 Cronbach's alpha 값을 사용하였고 노인부양의식도의 분석을 위하여 설정된 각 변수별 가설의 검정에는 t검정과 분산분석법(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사용하였으며 각 group간의 비교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하여 비교하였다. 노인부양 의식도는 Tuckman과 Lorange¹⁷⁾가 노인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제작한 검사항목과 김⁵⁾ 임¹⁸⁾이 노인들의 부양의식도 측정을 위하여 제작한 검사항목 등을 참고 분석하여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인 노인 부양의식도 측정을 위하여 경제적 부양의식척도 10개 문항, 정서적 부양의식척도 10개 문항, 서비스 부양의식척도 10개 문항 등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적극 찬성, 찬성, 중립, 반대, 적극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Likert 척도로 “적극 찬성”에 5점, “찬성”에 4점, “중립”에 3점, “반대”에 2점, “적극 반대”에 1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노인부양의식척도의 신뢰도 검사(Cron-

nbach's alpha) 결과는 경제적 부양 의식도의 α 값이 0.9043, 정서적 부양의식도의 α 값이 0.8989, 서비스 부양의식도의 α 값은 0.8958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조사내용

본 연구의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① 성별, ② 생활 정도, ③ 주거상황, ④ 노인과의 동거경험 유무, ⑤ 출생순위, ⑥ 가정교육, ⑦ 종교 등이 있고 둘째, 가정내에서의 노인과의 관계에서는 ① 고부간의 관계, ② 부모님의 조부모님께 대한 효도 태도가 있다. 셋째는 노인에 대한 태도로 ① 노인에 대한 수용태도, ② 향후 부모님과의 동거희망 여부가 있으며, 넷째로 자신의 노후에 대한 태도로 ① 향후 자신의 피부양태도, ② 향후 자녀와의 동거희망 여부, 그리고 끝으로 노인부양 의식도로 ① 경제적 부양의식, ② 정서적 부양의식, ③ 서비스 부양의식 등이 있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 목적을 위하여 선정된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1.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요인

독립 변수와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고자 독립변수별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1) 노인에 대한 수용태도와 관련된 요인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노인과의 동거경험 유무 및 고부간의 관계와 노인에 대한 수용태도와의 관련성을 보기 위하여 χ^2 -test를 한 결과는 표 2와 같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존경하고 있다」거나 「잘 모셔드리고 싶어진다」는 긍정적인 태도로 남학생의 78.5%, 여학생의 65.5%가 응답하였고, 「귀찮게 여겨지거나 관심이 없다」는 부정적인 태도에는 남학생의 6.8%, 여학생의 4.3%가 응답하여, 여학생에 비하여 남학생의 노인에 대한 수용태도가 긍정적이었으나 부정적인 태도 또한 여학생에 비하여 조금 높았다($P=0.002$).

가정의 경제상태가 「상」인 경우 60.0%, 「중상」인 경우 79.7%, 「중」인 경우가 72.0%, 「하」인 경우 54.3

표 1.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변수		명(%)
나이	15~19세	89(25.2)
	20~24세	230(65.1)
	25~29세	34(9.5)
성별	남자	179(49.0)
	여자	186(51.0)
가정의 경제상태	상	5(1.4)
	중상	94(26.0)
	중	227(62.9)
	하	35(9.7)
노인과의 동거경험 유무	현재 동거중이다.	48(13.2)
	동거 경험이 있다.	160(44.0)
	동거 경험이 전혀 없다.	156(42.9)
출생순위	형제, 자매중 맨위	128(35.2)
	형제, 자매중 중간	118(32.4)
	형제, 자매중 맨끝	118(32.4)
가정교육 형태	엄격한 편	69(19.0)
	보통인 편	197(54.3)
	자유로운 편	97(26.7)
종교	기독교	74(20.4)
	가톨릭	21(5.8)
	불교	83(22.9)
	기타	8(2.2)
	없음	177(48.8)

%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가정의 경제상태가 중상 또는 중인 경우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P=0.048$).

노인과 동거중인 경우 긍정적인 태도로 응답한 경우가 70.9%,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가 77.6%로 동거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의 66.2%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태도에 있어서 맨위의 경우 70.9%, 중간은 69.5%, 맨끝은 75.3%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가정교육형태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태도에 있어 가정교육이 엄격한 경우가 76.8%로 자유로운 경우의 65.6

표 2. 노인에 대한 수용태도와 관련된 요인

단위: 응답자 수 (%)

변수	노인에 대한 수용태도	존경하고 있다	잘 모셔 드리고 싶어진다	축은하게 여겨진다	귀찮게 여겨지거나 관심이 없다	계
성별	남자	19(10.7)	120(67.8)	26(14.7)	12(6.8)	177(100.0)
	여자	10(5.4)	112(60.2)	56(30.1)	8(4.3)	186(100.0)
가정의 경제상태	상	1(20.0)	2(40.0)	2(40.0)	0(0.0)	5(100.0)
	중상	10(10.6)	65(69.1)	16(17.0)	3(3.2)	94(100.0)
	중	13(5.8)	149(66.2)	51(22.7)	12(5.3)	225(100.0)
	하	5(14.3)	14(40.0)	11(31.4)	5(14.3)	35(100.0)
$\chi^2 = 14.933 \ df = 3 \ P = 0.002$						
노인과의 동거경험	현재 동거중	2(4.2)	32(66.7)	13(27.1)	1(2.1)	48(100.0)
	동거경험 있다	18(11.3)	106(66.3)	29(18.1)	7(4.4)	160(100.0)
	동거경험 전혀없다	9(5.8)	93(60.4)	40(26.0)	12(7.7)	154(100.0)
$\chi^2 = 10.125 \ df = 6 \ P = 0.120$						
출생순위	맨 위	10(7.9)	80(63.0)	29(22.8)	8(6.3)	127(100.0)
	중 간	9(7.6)	73(61.9)	29(24.6)	7(5.9)	118(100.0)
	맨 끝	10(8.5)	78(66.7)	24(20.5)	5(4.3)	117(100.0)
$\chi^2 = 1.258 \ df = 6 \ P = 0.974$						
가정교육 형태	엄격한편	6(8.7)	47(68.1)	14(20.3)	2(2.9)	69(100.0)
	보통인편	11(5.6)	132(67.3)	40(20.4)	13(6.6)	196(100.0)
	자유로운편	12(12.5)	51(53.1)	28(29.2)	5(5.2)	96(100.0)
$\chi^2 = 9.812 \ df = 6 \ P = 0.133$						
종교	기독교	5(6.8)	51(68.9)	15(20.3)	3(4.1)	74(100.0)
	가톨릭	2(9.5)	14(66.7)	5(23.8)	0(0.0)	21(100.0)
	불교	4(4.9)	61(74.4)	15(18.3)	2(2.4)	82(100.0)
	기타	1(12.5)	5(62.5)	0(0.0)	2(25.0)	8(100.0)
	없음	17(9.7)	100(56.8)	46(26.1)	13(7.4)	176(100.0)
$\chi^2 = 19.004 \ df = 12 \ P = 0.088$						

* 무응답자 제외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부정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엄격한 경우가 2.9%, 자유로운 경우는 5.2%로 나타났으나 가정교육형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종교에 따른 노인에 대한 수용태도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볼 수 없었다.

2) 향후 부모님과의 동거희망여부와 관련된 요인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노인과의 동거경험유

무 및 고부간의 관계와 향후 부모님과의 동거희망여부와 관련성을 보기 위하여 χ^2 -test를 한 결과는 표 3과 같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함께 살고 싶다」고 동거를 희망한 남학생이 58.8%로 여학생의 22.6%에 비해 훨씬 높아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향후 부모님과의 동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

가정의 경제상태가 「상」인 경우가 「함께 살고 싶다」에

표 3. 향후 부모님과의 동거희망여부와 관련된 요인

단위 : 응답자 수 (%)

변수	향후 부모님과의 동거희망여부	함께 살고 싶다	2~3년간 함께 살고 싶다	피할수 없다면 함께 산다	따로 살고 싶다	모르겠다	제
성별	남자	104(58.8)	13(7.3)	13(7.3)	29(16.4)	18(10.2)	177(100.0)
	여자	42(22.6)	48(25.8)	25(13.4)	43(23.1)	28(15.1)	186(100.0)
					$\chi^2 = 57.108$	$df = 4$	$P = 0.000$
가정의 경제상태	상	4(80.0)	1(20.0)	0(0.0)	0(0.0)	0(0.0)	5(100.0)
	중상	36(38.7)	16(17.2)	9(9.7)	24(25.8)	8(8.6)	93(100.0)
	중	88(38.9)	39(17.3)	25(11.1)	39(17.3)	35(15.5)	226(100.0)
	하	16(45.7)	4(11.4)	4(11.4)	8(22.9)	3(8.6)	35(100.0)
					$\chi^2 = 12.797$	$df = 12$	$P = 0.384$
노인과의 동거경험	현재 동거중	20(42.6)	9(19.1)	6(12.8)	7(14.9)	5(10.6)	47(100.0)
	동거경험 있다	73(45.9)	26(16.4)	16(10.1)	30(18.9)	14(8.8)	159(100.0)
	동거경험 전혀없다	52(33.3)	26(16.7)	16(10.3)	35(22.4)	27(17.3)	156(100.0)
					$\chi^2 = 9.516$	$df = 8$	$P = 0.301$
출생순위	맨 위	50(39.4)	21(16.5)	16(12.6)	29(22.8)	11(8.7)	127(100.0)
	중 간	47(39.8)	22(18.6)	10(8.5)	21(17.8)	18(15.3)	118(100.0)
	맨 끝	48(41.0)	18(15.4)	12(10.3)	22(18.8)	17(14.5)	117(100.0)
					$\chi^2 = 4.994$	$df = 8$	$P = 0.758$
가정교육 형태	엄격한편	31(44.9)	10(14.5)	7(10.1)	12(17.4)	9(13.0)	69(100.0)
	보통인편	70(35.7)	39(19.9)	23(11.7)	40(20.4)	24(12.2)	196(100.0)
	자유로운편	44(45.8)	12(12.5)	8(8.3)	19(19.8)	13(13.5)	96(100.0)
					$\chi^2 = 5.637$	$df = 8$	$P = 0.688$
종교	기독교	23(31.5)	16(21.9)	7(9.6)	21(28.8)	6(8.2)	73(100.0)
	가톨릭	7(33.3)	6(28.6)	1(4.8)	4(19.0)	3(14.3)	21(100.0)
	불교	38(45.8)	16(19.3)	8(9.6)	11(13.3)	10(12.0)	83(100.0)
	기타	2(25.0)	2(25.0)	2(25.0)	1(12.5)	1(12.5)	8(100.0)
	없음	74(42.0)	21(11.9)	20(11.4)	35(19.9)	26(14.8)	176(100.0)
					$\chi^2 = 17.885$	$df = 16$	$P = 0.331$

* 무응답자 제외

8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경제상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노인과의 동거경험유무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가 「함께 살고 싶다」에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거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따로 살고 싶다」고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나 동거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향후 부모님과의 동거를 희망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으나 노

인과의 동거경험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출생순위에 따른 향후 부모님과의 동거희망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정교육의 자유로운 경우와 엄한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부모님과의 동거를 희망하는 「함께 살고 싶다」에 각각 45.8%와 44.9%로 높게 나타났으나 가정교육형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종교에 따라서서는 「함께 살고 싶다」에 기독교 31.5%, 가톨릭 33.3%, 불교 45.8%, 기타 25.0%, 무교에 42.0%의 응답을 하였으나 종교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자신의 향후에 대한 태도

1) 향후 자신의 피부양태도와 관련된 요인

제 변수에 따른 향후 자신의 피부양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test를 한 결과는 표 4와 같았다.

성별로 보면 「기대한다」고 응답한 남학생이 4.5%로 여학생의 2.2%보다 높았고, 「기대 안한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57.0%로 여학생의 76.9%보다 낮게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신의 향후 자녀로부터의 피부양 기대의식이 높았다($P=0.000$).

가정의 경제상태가 「상」인 경우 「기대한다」고 20.0%가 응답했고 「중상」인 경우 5.3%, 「중」인 경우 1.8%, 「하」인 경우 5.7%

표 4. 향후 자신의 피부양태도와 관련된 요인

변 수	향후 자신의 피부양태도	기대한다	단위 : 응답자 수 (%)			
			두 고봐야 겠다	기대안한다	모르겠다	계
성 별	남 자	8(4.5)	49(27.4)	102(57.0)	20(11.2)	179(100.0)
	여 자	4(2.2)	32(17.2)	143(76.9)	7(3.8)	186(100.0)
			$\chi^2 = 18.240 \ df = 3 \ P = 0.000$			
가정의 경제상태	상	1(20.0)	2(40.0)	2(40.0)	0(0.0)	5(100.0)
	중상	5(5.3)	21(22.3)	65(69.1)	3(3.2)	94(100.0)
	중	4(1.8)	54(23.8)	147(64.8)	22(9.7)	227(100.0)
	하	2(5.7)	4(11.4)	28(80.0)	1(2.9)	35(100.0)
			$\chi^2 = 16.461 \ df = 9 \ P = 0.058$			
노인과의 동거경험	현재 동거중	2(4.2)	13(27.1)	31(64.6)	2(4.2)	48(100.0)
	동거경험 있다	3(1.9)	37(23.1)	105(65.6)	15(9.4)	160(100.0)
	동거경험 전혀없다	6(3.8)	31(19.9)	109(69.9)	10(6.4)	156(100.0)
			$\chi^2 = 4.324 \ df = 6 \ P = 0.633$			
출생순위	맨 위	7(5.5)	25(19.5)	84(65.6)	12(9.4)	128(100.0)
	중 간	1(0.8)	30(25.4)	77(65.3)	10(8.5)	118(100.0)
	맨 끝	3(2.5)	26(22.0)	84(71.2)	5(4.2)	118(100.0)
			$\chi^2 = 8.754 \ df = 6 \ P = 0.188$			
가정교육 형태	엄격한편	4(5.8)	15(21.7)	45(65.2)	5(7.2)	69(100.0)
	보통인편	5(2.5)	44(22.3)	135(68.5)	13(6.6)	197(100.0)
	자유로운편	2(2.1)	21(21.6)	65(67.0)	9(9.3)	97(100.0)
			$\chi^2 = 2.589 \ df = 6 \ P = 0.858$			
종 교	기독교	2(2.7)	21(28.4)	49(66.2)	2(2.7)	74(100.0)
	가톨릭	1(4.8)	2(9.5)	17(81.0)	1(4.8)	21(100.0)
	불 교	4(4.8)	17(20.5)	53(63.9)	9(10.8)	83(100.0)
	기 타	0(0.0)	1(12.5)	6(75.0)	1(12.5)	8(100.0)
	없 음	4(2.3)	40(22.6)	120(67.8)	13(7.3)	(100.0)
			$\chi^2 = 10.742 \ df = 12 \ P = 0.551$			

* 무응답자 제외

「하」인 경우 5.7%가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노인과 현재 동거중인 경우 「기대한다」고 4.2%가 응답하였고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 1.9%, 동거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3.8%가 응답하였으나, 노인과의 동거 경험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출생순위가 맨위인 경우 「기대한다」고 5.5%가 응답해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가정교육이 엄격한 경우 「기대한다」에 5.8%가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종교에 따른 향후 자신의 피부양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향후 자녀와의 동거희망여부와 관련된 요인

제 변수에 따른 향후 자녀와의 동거희망여부를 알아

표 5. 향후 자녀와의 동거희망여부와 관련된 요인

단위 : 응답자 수(%)

변수	향후 자녀와의 동거희망여부	함께살고 싶다	여전히 허락하면 따로 살겠다			계
			따로 살겠다	모르겠다		
성별	남자	32(18.1)	58(32.8)	61(34.5)	26(14.7)	177(100.0)
	여자	14(7.6)	87(47.3)	76(41.3)	7(3.8)	184(100.0)
			$\chi^2 = 26.226$ df= 3 P=0.000			
가정의 경제상태	상	1(20.0)	0(0.0)	3(60.0)	1(20.0)	5(100.0)
	중상	10(10.6)	41(43.6)	39(41.5)	4(4.3)	94(100.0)
	중	30(13.3)	96(42.7)	75(33.3)	24(10.7)	225(100.0)
	하	5(15.2)	7(21.2)	18(54.5)	3(9.1)	33(100.0)
			$\chi^2 = 17.266$ df= 9 P=0.045			
노인과의 동거경험 유무	현재 동거중	6(12.8)	19(40.4)	18(38.3)	4(8.5)	47(100.0)
	동거경험 있다	23(14.4)	66(41.3)	55(34.4)	16(10.0)	160(100.0)
	동거경험 전혀없다	17(11.1)	59(38.6)	64(41.8)	13(8.5)	153(100.0)
			$\chi^2 = 2.161$ df= 6 P=0.904			
출생순위	맨 위	20(15.9)	43(34.1)	54(42.9)	9(7.1)	126(100.0)
	중간	14(12.0)	48(41.0)	45(38.5)	10(8.5)	117(100.0)
	맨 끝	12(10.3)	53(45.3)	38(32.5)	14(12.0)	117(100.0)
			$\chi^2 = 6.841$ df= 6 P=0.336			
가정교육 형태	엄격한편	14(20.6)	27(39.7)	23(33.8)	4(5.9)	68(100.0)
	보통인편	19(9.7)	86(43.9)	73(37.2)	18(9.2)	196(100.0)
	자유로운편	13(13.7)	30(31.6)	41(43.2)	11(11.6)	95(100.0)
			$\chi^2 = 9.378$ df= 6 P=0.153			
종교	기독교	9(12.3)	28(38.4)	32(43.8)	4(5.5)	73(100.0)
	가톨릭	0(0.0)	11(52.4)	9(42.9)	1(4.8)	21(100.0)
	불교	15(18.3)	30(36.6)	32(39.0)	5(6.1)	82(100.0)
	기타	1(12.5)	2(25.0)	3(37.5)	2(25.0)	8(100.0)
	없음	21(12.0)	73(41.7)	61(34.9)	20(11.4)	175(100.0)
			$\chi^2 = 15.217$ df= 12 P=0.230			

* 무응답자 제외

보기 위하여 χ^2 -test를 한 결과는 표 5와 같았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18.1%가 「함께 살고 싶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의 7.5%보다 높아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노후 자녀와의 동거희망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00$)。

가정의 경제상태가 「상」인 경우 「함께 살고 싶다」고 20.0%가 응답하여 「중상」인 경우 10.6%, 「중」인 경우 13.3%, 「하」인 경우 15.2%에 비해 유의하게 동거 노인과의 동거경험유무에 따라서는 「함께 살고 싶다」에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가 14.4%, 현재 동거중인 경우 12.8% 동거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11.1%로 응답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출생순위가 맨위의 경우 「함께 살고 싶다」에 15.9%가 응답하여 출생순위가 중간이나 맨끝인 경우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가정교육이 엄격한 경우 「함께 살고 싶다」에 20.6%가 응답해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종교에 따른 향후 자녀와의 동거희망여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향후 부모님과의 동거희망여부와 향후 자녀와의 동거희망여부의 관련성

향후 부모님과의 동거희망여부와 노후 자녀와의 동거희망여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test를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부모님과의 동거를 희망하는 「계속 함께 살고 싶다」에 응답한 경우는 자신의 노후에도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함께 살고 싶다」에 23.6%를 보여 대체로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편이었다($P=0.000$)。

5. 노인부양의식도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서비스 부양의 각 척도는 10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척도점수의 이론적 범위(theoretical range)는 10~50점이며, 노인부양의식도의 총점수는 30~150점의 범위를 갖도록 만들어졌다.

각 부양형태에 따른 노인부양의식도의 평균점수를 보면 경제적 부양이 42.3점 정서적 부양이 38.1점, 서비스 부양이 39.8점으로 나타나 경제적 부양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 가설 「성별에 따라 노인부양의식도에 차이가 있을

표 6. 향후 부모님과의 동거희망여부와 향후자녀와의 동거희망여부의 관련성

단위: 응답자 수(%)

향후자신의 피부양태도	함께 살고 싶다	여전이허 락한다면 파로살고 싶다	파로 살고 싶다	모르 겠다	계
향후부모님 부양태도					
계속 함께	34	52	47	11	144
살고 싶다	(23.6)	(36.1)	(32.6)	(7.6)	(100.0)
2~3년간 함께	5	26	22	6	59
살고 싶다	(8.5)	(44.1)	(37.3)	(10.2)	(100.0)
피할 수 없다면	4	22	9	3	38
함께 산다	(10.5)	(57.9)	(23.7)	(7.9)	(100.0)
파로 살고 싶다	0 (0.0)	29 (40.3)	40 (55.6)	3 (4.2)	72 (100.0)
모르겠다	3 (6.5)	16 (34.8)	18 (39.1)	9 (19.6)	46 (100.0)
계	46 (12.8)	145 (40.4)	136 (37.9)	32 (8.9)	359 (100.0)

* 무응답자 제외

$\chi^2=51.274$ df=12 P=0.000

것이다」의 검정

성별에 따른 노인부양의식도의 t-test 결과는 표 7과 같았다.

경제적 부양의식도는 남학생이 42.58점, 여학생이 42.12점으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따라서 가설 「성별에 따라 노인부양의식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2) 가설 「가정의 경제 상태에 따라 노인부양의식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검정

가정의 경제 상태별 노인부양의식도의 분산분석 결과는 표 8과 같았다.

가정의 경제 상태에 따른 경제적, 정서적 및 서비스 노인부양의식도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따라서 가설 「가정의 경제 상태에 따라 노인부양의식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3) 가설 「노인과의 동거경험유무에 따라 노인부양의식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검정

노인과의 동거경험유무별 분산분석 결과는 표 9와 같았다.

표 7. 성별 노인부양의식도에 관한 t검정

성별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t값	P
<u>경제적 부양의식도</u>					
남자	179	42.58	5.30		
여자	186	42.12	4.41	0.91	0.364
<u>정서적 부양의식도</u>					
남자	179	38.70	5.67		
여자	186	37.57	5.12	2.01	0.045
<u>서비스 부양의식도</u>					
남자	179	40.07	5.06		
여자	186	38.87	4.64	2.38	0.018
<u>전체 부양의식도</u>					
남자	179	121.36	14.53		
여자	186	118.55	12.81	1.96	0.051

표 8. 가정의 경제 상태별 노인부양의식도에 관한 분산분석

가정의 경제상태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F값	P
<u>경제적 부양의식도</u>					
상	5	44.00	4.74		
중상	94	42.73	4.78		
중	227	42.18	4.51	0.484	0.694
하	35	42.49	7.11		
<u>정서적 부양의식도</u>					
상	5	39.00	3.87		
중상	94	38.65	5.68		
중	227	37.97	5.31	0.476	0.700
하	35	37.66	5.89		
<u>서비스 부양의식도</u>					
상	5	41.60	5.94		
중상	94	40.05	4.98		
중	227	39.26	4.71	1.040	0.375
하	35	38.91	5.74		
<u>전체 부양의식도</u>					
상	5	124.60	13.32		
중상	94	121.44	14.08		
중	227	119.41	13.01	0.714	0.544
하	35	119.06	17.74		

표 9. 노인과의 동거경험 유무별 노인부양의식도에 관한 분산분석

노인과의 동거경험 유무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F값	P
<u>경제적 부양의식도</u>					
현재동거중이다	48	42.50	4.16		
동거경험이 있다	160	42.68	4.61	0.890	0.412
동거경험이 전혀없다	156	41.96	5.32		
<u>정서적 부양의식도</u>					
현재동거중이다	48	37.75	4.77		
동거경험이 있다	160	38.71	5.26	1.714	0.182
동거경험이 전혀없다	156	37.62	5.73		
<u>서비스 부양의식도</u>					
현재동거중이다	48	39.00	4.58		
동거경험이 있다	160	39.85	5.07	1.004	0.368
동거경험이 전혀없다	156	39.17	4.77		
<u>전체 부양의식도</u>					
현재동거중이다	48	119.25	11.90		
동거경험이 있다	160	121.23	13.52	1.360	0.258
동거경험이 전혀없다	156	118.74	14.44		
<u>출생순위별 노인부양의식도에 관한 분산 분석</u>					
출생순위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F값	P
<u>경제적 부양의식도</u>					
맨 위	128	42.09	5.45		
중 간	118	42.37	4.38	0.335	0.716
끝	118	42.59	4.70		
<u>정서적 부양의식도</u>					
맨 위	128	38.29	5.74		
중 간	118	37.83	5.07	0.246	0.782
끝	118	38.21	5.43		
<u>서비스 부양의식도</u>					
맨 위	128	39.30	5.18		
중 간	118	39.47	4.52	0.096	0.908
끝	118	39.58	4.94		
<u>전체 부양의식도</u>					
맨 위	128	119.68	15.19		
중 간	118	119.67	12.24	0.105	0.900
끝	118	120.38	13.60		

노인과의 동거경험유무에 따른 모든 노인부양의식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가설 「노인과의 동거경험 유무에 따라 노인부양의식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4) 가설 「출생순위에 따라 노인부양의식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검정

출생순위별 노인부양의식도의 분산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았다.

출생순위에 따라 노인부양의식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가설 「출생순위에 따라 노인부양의식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5) 가설 「가정내 고부간의 관계에 따라 노인부양의식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검정

고부간의 관계에 따른 노인부양의식도의 분산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았다.

고부간의 사이가 좋은 경우 경제적 부양의식도가 43.55점으로 충돌이 가끔 있거나 찾은 편인 경우 40.14점,

41.30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정서적, 서비스 및 전체 부양의식도 또한 고부간의 사이가 좋은 경우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고부간의 관계에 따라 노인부양의식도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고부간의 사이가 좋을 수록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도가 높았으므로 ($P=0.001$), 가설 「가정내 고부간의 관계에 따라 노인부양의식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6) 가설 「노인에 대한 수용태도에 따라 노인부양의식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검정

노인에 대한 수용태도별 노인부양의식도에 관한 분산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았다.

경제적 부양의식도에 있어 노인에 대하여 「존경하고 있다」거나 「잘 모셔드리고 싶어진다」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는 각각 44.69점, 42.81점이었고 「축은하게 여겨진다」는 41.30점, 「귀찮게 여겨지거나 관심이 없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는 37.60점으로 긍정적인 태도의 경우에 비하여 경제적 부양의식도가 낮았으며,

표 11. 고부간의 관계별 노인부양의식도에 관한 분산분석

고부간의 관계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F값	P	Duncan grouping
<u>경제적 부양의식도</u>						
사이가 좋으시다	75	43.35	4.52			A
보통이다	104	41.89	4.16			B
가끔 충돌이 있으시다	29	40.14	4.67	4.180	0.007	B
충돌이 찾으신 편이다	10	41.30	4.27			A B
<u>정서적 부양의식도</u>						
사이가 좋으시다	75	39.15	5.10			A
보통이다	104	37.57	4.82			B
가끔 충돌이 있으시다	29	36.45	3.90	3.597	0.014	B
충돌이 찾으신 편이다	10	35.20	7.07			B
<u>서비스 부양의식도</u>						
사이가 좋으시다	75	40.67	4.81			A
보통이다	104	38.59	4.40			B
가끔 충돌이 있으시다	29	37.45	3.10	6.231	0.000	B
충돌이 찾으신 편이다	10	36.40	4.43			B
<u>전체 부양의식도</u>						
사이가 좋으시다	75	123.16	12.88			A
보통이다	104	118.05	11.87			B
가끔 충돌이 있으시다	29	114.03	9.51	5.671	0.001	B
충돌이 찾으신 편이다	10	112.90	14.37			B

표 12. 노인에 대한 수용태도별 노인부양의식도에 관한 분산분석

노인에 대한 수용태도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F값	P	Duncan grouping
<u>경제적 부양의식도</u>						
존경하고 있다	29	44.69	4.39			A
잘 모셔드리고 싶다	232	42.81	4.51			B
축은하게 여겨진다	82	41.30	4.38	11.461	0.000	C
귀찮게 여겨지거나 관심이 없다	20	37.60	7.29			D
<u>정서적 부양의식도</u>						
존경하고 있다	29	40.38	6.04			A
잘 모셔드리고 싶다	232	38.98	5.08			A
축은하게 여겨진다	82	36.50	4.36	16.933	0.000	B
귀찮게 여겨지거나 관심이 없다	20	31.85	6.52			C
<u>서비스 부양의식도</u>						
존경하고 있다	29	41.83	5.10			A
잘 모셔드리고 싶다	232	40.05	4.73			A
축은하게 여겨진다	82	38.05	4.05	12.731	0.000	B
귀찮게 여겨지거나 관심이 없다	20	34.85	5.64			C
<u>전체 부양의식도</u>						
존경하고 있다	29	126.90	14.02			A
잘 모셔드리고 싶다	232	121.84	12.91			B
축은하게 여겨진다	82	115.85	11.00	16.987	0.000	C
귀찮게 여겨지거나 관심이 없다	20	104.30	17.92			D

정서적 부양의식도와 서비스 부양의식도에서도 노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므로($P=0.000$) 가설 「노인에 대한 수용태도에 따라 노인부양의식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7) 가설 「향후 부모님과의 동거희망여부에 따라 노인부양의식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검정

향후 부모님과의 동거희망여부에 따른 노인부양의식도에 관한 분산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았다.

향후 부모님과의 동거희망여부에 따른 노인부양의식도에 관한 분석결과는 경제적 부양의식도에서 동거를 희망하는 「계속 함께 살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 44.10점으로 가장 높았고, 별거를 희망하는 「따로 살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 40.2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서 향후 부모님과의 동거희망여부에 따라 노인부양의식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 정서적, 서비스 부양

의식도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P=0.000$), 가설 「향후 부모님과의 동거희망여부에 따른 노인부양의식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6. 제 변수와 노인부양의식도의 상관관계 및 각 부양의식도간의 상관관계

1) 제 변수와 노인부양의식도의 상관관계

인구사회학적 변수, 고부간의 관계, 부모님의 효성과 노인부양의식도와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Spearman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는 표 14와 같았다.

경제적 부양의식도는 고부간의 관계가 좋을수록, 부모님의 조부모님께 대한 효성이 지극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0.01$), 정서적 부양의식도는 고부간의 관계 및 부모님의 효성과 정상관관계를 나타냈고($P<0.01$), 서비스 부양의식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남학생일 경우, 고부간의 관계가 좋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P<0.01$),

표 13. 향후 부모님과의 동거희망여부와 노인부양의식도에 관한 분산분석

향후 부모님과의 동거희망여부	응답자수	평 균	표준편차	F값	P	Duncan grouping
<u>경제적 부양의식도</u>						
계속 함께 살고 싶다	146	44.10	4.52			A
2~3년만 함께 살고 싶다	61	41.34	3.94			B
피할 수 없다면 함께 산다	38	41.50	4.14	12.844	0.000	B
따로 살고 싶다	72	40.24	5.85			B
<u>정서적 부양의식도</u>						
계속 함께 살고 싶다	146	40.16	4.89			A
2~3년만 함께 살고 싶다	61	36.90	3.87			B
피할 수 없다면 함께 산다	38	37.21	6.14	16.484	0.000	B
따로 살고 싶다	72	35.38	5.70			B
<u>서비스 부양의식도</u>						
계속 함께 살고 싶다	146	41.16	4.88			A
2~3년만 함께 살고 싶다	61	38.36	3.80			B
피할 수 없다면 함께 산다	38	38.97	5.16	14.245	0.000	B
따로 살고 싶다	72	37.06	4.53			B
<u>전 체 부양의식도</u>						
계속 함께 살고 싶다	146	125.42	12.97			A
2~3년만 함께 살고 싶다	61	116.61	9.81			B
피할 수 없다면 함께 산다	38	117.68	13.88	18.186	0.000	B
따로 살고 싶다	72	112.67	14.41			B

전체 부양의식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고부간의 관계가 좋을수록, 부모님의 효성이 지극할수록 높게 나타났다($P < 0.01$)。

표 14. 제 변수와 노인부양의식도의 상관계수

변 수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	전 체
	부양의식도	부양의식도	부양의식도	부양의식도
나 이	0.1391	0.1998	0.1697*	0.1597*
성 별	-0.0604	-0.1314	-0.1414*	-0.1344
가정의 경제 상태	0.0041	0.0569	0.0513	0.0407
노인과의 동거 경험 유무	0.0389	0.0575	0.0412	0.0461
출생순위	-0.0454	-0.0382	-0.0242	-0.0181
고부간의 관계	0.2201*	0.1981*	0.2815**	0.2701**
부모님의 효성	0.2125**	0.1740*	0.1379	0.2068*

* $P < 0.01$ ** $P < 0.001$

2) 각 부양의식도간의 상관관계

각 부양의식도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표 15와 같았다.

경제적, 정서적 및 서비스 부양의식도 상호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표 15. 각 부양의식도간의 상관계수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	전 체
부양의식도				
경제적				
부양의식도	-			
정서적				
부양의식도	0.5571**			
서비스				
부양의식도	0.6167**	0.8093**		
전 체				
부양의식도	0.8162**	0.9044**	0.9183**	

* $P < 0.01$ ** $P < 0.001$

IV. 고 찰

노인의 가정내 부양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부양형태이며 가부장제 가족제도 아래 유교사상에서 오는 효관념 및 행동규범과 더불어 직계가족 특히 장남가족과의 동거, 가계의 계승 및 가산상속 등을 통해서 구현되어 왔다. 부모는 원칙적으로 장자가 모시며 노후의 이상은 동거하는 자녀들의 봉양 아래에서 전생을 마치는 것이었다.¹⁹⁾ 즉 가족주의에 바탕을 둔 우리나라 문화의 경우 부모가 활동 가능한 시기를 자녀부양에 바치는 대신 활동능력이 상실된 노후는 전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는 체계를 취해왔다. 반면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서구사회에서는 부모들의 자녀부양책임이 이들의 성년기까지 이며 성년이 된 후 집을 떠나면 그후 상당기간동안 경제활동이 가능하므로써 노년기의 독립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부양구조의 차이는 곧 이들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두 문화간의 가족형태의 변화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자녀의 사회변화 과정에서도 발견된다.²⁰⁾ 그러나 오늘날 산업화 이후의 서구적 문화의 유입에 따른 가치규범의 변화는 부모와 자녀세대간의 교육 및 직업차, 세대간의 기대 및 욕구의 불일치,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지나친 소가족주의(무자녀 또는 한자녀주의)가 임태하고 있는 전통적 부양기반의 와해 등을 가져옴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적 부양구조의 쇠퇴와 더불어 새로운 부양체계 정립의 시급성을 제기하고 있다.⁴⁾

최근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고 노인에 대한 노후보장에도 세심한 배려가 실시되는 선진국가들에서는 국가 및 사회복지 단체가 주로 맡았던 노인부양책임을 최근와서는 가족역할의 확대라는 방향으로 서서히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는 노인의 정신건강, 행복감, 그리고 심리적 만족 등에 대한 배려 및 지원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또 점차 증가하는 노인추세는 지금까지 부양책임을 전적으로 맡고 있던 가족의 역할을 서서히 감소시키고, 그 대신 사회단위 및 공적부조시스템의 개발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노인부양시스템은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이같은 기능을 과거에 가족이 맡아왔고,

현재도 맡고 있지만 또 이것을 미래에도 계속 맡게 하는 것은 절실히 요망되는 일이다.

이처럼 가족이 노인문제해결과 노인부양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가족구성원들이 노인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또 노인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현재는 기성세대에 속하지 않는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수용태도와 노인부양의식도를 연구하는 것은 노인문제 해결에 향후의 가족역할을 파악하는 것이며 노인부양체계를 개발함에 기초자료로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²¹⁾

본 연구결과에 나타난 노인에 대한 수용태도에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여학생의 태도가 보다 긍정적인 임¹⁸⁾의 결과와는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가정의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노인에 대한 수용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또한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가 동거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보다 긍정적이었다. 이는 노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 부정적인 경향이 보다 적다고 밝힌 Tuckman과 Lorge²²⁾의 연구결과나 조²³⁾의 연구결과와는 같았으나 동거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임¹⁸⁾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형상을 보였다.

향후 부모님과의 동거희망 여부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향후 부모님과의 동거를 희망하였는데, 그 이유는 남학생의 경우 친부모님이므로 함께 생활함에 있어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여학생보다 부담이 없을 것이며, 남자의 경우 가장이 되었을 때 가정 밖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므로 계속 가족들과 접촉을 해야 하는 주부들보다 부모님과의 동거에서 오는 어려움을 덜 느낄 것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 동거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보다 부모님과의 동거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었다.

노후에 자녀에 대한 페부양기대의식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게 나타나 임¹⁸⁾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노후 자녀와의 동거 희망율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임¹⁸⁾의 결과와 같았으며, 가정의 경제 상태가 좋을수록 노후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었다.

향후 부모님과의 동거를 희망하는 경우 자신의 노후에도 대체로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편으로 나타나 이는 임¹⁸⁾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도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경제적 부양과 정서적 부양 및 서비스 부양 등 모든 면에서 높은 부양의식도를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노인부양의식도를 보인 임¹⁸⁾의 결과와는 상이하였으며, 고부간의 사이가 좋은 경우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 부양 등 모든 면에서 노인부양의식도가 높게 나타나 임³⁵⁾의 결과와 같았다. 이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가 있었다. 노인에 대한 수용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 부양의식도가 높게 나타나 임¹⁸⁾의 결과와 같았다. 향후 부모님과의 동거희망율이 높을 경우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 부양의식도가 높게 나타나 임¹⁸⁾의 결과와 같았다.

제 변수와 노인부양의식도와의 상관관계에서 경제적 부양의식도와 정서적 부양의식도는 고부간의 관계가 좋을수록, 부모님의 조부모님께 대한 효성이 지극할수록 높았으며, 서비스 부양의식도는 나이, 성별, 고부간의 관계와 정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각 부양의식도간의 상관관계에서 경제적, 정서적 및 서비스 부양의식도 상호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향후 부모님 부양을 책임져야 할 젊은 세대인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도를 파악하고, 그에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해봄으로써 노인부양 체제 중 가장 이상적인 가족부양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고 노인복지대책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1992년 11월 9일부터 1992년 11월 23일까지 부산시내 남녀 대학생 3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요인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노인에 대한 수용태도가 긍정적이었고($P=0.002$), 가정의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노인에 대한 수용태도가 긍정적이었다($P=0.048$). 향후 부모님과의 동거희망여부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P=0.000$).

2. 자신의 노후에 대한 태도에서는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자신의 노후에 자녀의 피부양기대 의식이 높았고($P=0.000$),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희망율도 높았다($P=0.000$). 그리고 가정의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희망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P=0.045$).

3. 향후 부모님과의 동거를 희망하는 경우 자신의 노후에도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부모님과의 동거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노후에도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지 않았다($P=0.000$).

4. 노인부양의식도에 관한 가설검정결과는 고부간의 관계($P=0.001$), 노인에 대한 수용태도($P=0.000$), 향후 부모님과의 동거희망여부($P=0.000$)에 따라 노인부양의식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고부간의 관계가 좋을수록, 노인에 대한 수용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결혼 후 부모님과의 동거를 희망할수록 모든 노인부양의식도가 높았다.

5. 제 변수와 노인부양의식도와의 상관관계 및 각 부양의식도간의 상관관계에서 경제적 부양의식도와 정서적 부양의식도는 고부간의 관계, 부모님의 효성과 정상관관계를 나타냈고($P<0.01$), 서비스 부양의식도는 나이, 성별, 고부간의 관계와 정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P<0.01$), 경제적, 정서적 및 서비스 부양의식도 상호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VI. 제 언

이상과 같은 연구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는 바이다.

첫째,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이 최근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가치관이 변화됨에 따라 점차 퇴색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므로 현대사회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인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규범의 정립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실시는 물론 국민적인 계몽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산업사회에서도 노인의 부양은 가족부양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노인부양 가정의 세금감면조치와 주택분양 우선권부여 등으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노인들이 국민복지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에 대한 태도 및 노인부양의식도에 관하여 조사하였으나, 향후 연구의 방향은 부양자와 피부양자 상호간에 만족할 수 있는 노인을 공경하면서 가정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노인부양제도의 모형개발과 같은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의 개발을 목표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윤동주, 우리나라 노인부양 구조의 변화, 인구문제 논집, 11(1) : 59, 72, 1991.
2. 이가옥, 우리나라 노년학 연구의 동향, 인구문제논집, 10(2) : 119, 1990.
3. 보건사회백서, p. 318, 1991.
4. 류효신, 우리나라 주부의 노인부양의식 태도에 관한 연구, 인구보건논집, 5(2) : 41-56, 1985.
5. 김태현,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1.
6. 김민자, 공세권, 조애희, 결혼한 부인의 시부모와의 동거형태, 인구문제논집, 11(2) : 67, 77, 1991.
7. 이광규, 한국의 가족과 종교, 민음사, 1990.
8. Goode William, J. World Revolution and Family Patterns, New York : Free Press, 1963.
9. Goode William, J. World Revolution and Family Patterns, in Family in Transition 4th ed., edited by Arlene S. Skolick and Jerome H. Skolinick, Boston ; Little Brown, 1963.
10. 한국인구보건연구원, p. 221-222, 174, 250-251, 1985.
11. 최신덕, 노인부양과 규범의 정립, 학가족화와 노년복지에 관한 세미나 보고서, 서울 : 인구보건연구원, p. 21-28, 1982.
12. 박재간, 노인문제와 대책, 이우출판사, 1979.
13. 五島貞次, 생애보장론, 동경 : 문화서방 박문사, p. 233, 1978.
14. Irving Rosow, Old People, their Friends and Neighbor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14 : 60, 1970.
15. Hill, R. Decision Making and Family Life Cycle in Shanas. in Shanas and Streib, Social Structure and the Family, 1965.
16.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노인의 생활실태와 의식구조, 서울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4.
17. Tuckman, J. and Lorge, I. Attitudes toward old people, p. 249-260, 1953.
18. 임인해, 한국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19. 윤종주, 노년화사회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전망, 인구문제논집, 26 : 66, 1985.
20. 윤종주,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16, 1982.
21. Goode William, J. Family, Prentice-Hall, p. 108, 1964.
22. Tuckman, J., Lorge, I. and Spooner, G. A. The Effect of Family Environment on Attitude toward Old People and the Older Worker,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8 : 207-218, 1953.
23. 조명희, 노인에 대한 고등학생의 태도분석,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Abstract〉

A Study on the College Student's Awareness of Supporting the Elderly in Pusan

Soo Hye Kim, Byung Sung Kim, Hyung Jong Park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Inje University Pusan, Korea)

In our society the value system has changed to individualized one, so that the awareness of supporting the elderly is changing now.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the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and to foresee the probability of maintenance and development that the most ideal system of supporting the elderly by analyzing the male and female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nd the degree of their awarness of supporting the elderly according to several factors.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with this purpose, the study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65 college students who were recruited from 6 colleges(179 male students and 186 female students) living in Pusan, and the study period was from November 9. to November 23. 1992.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In the factors related to attitude toward the elderly, male students had more positive attitude than female students toward the desire of living with their parents in the future($P=0.000$).
2. In the expectant awareness of being supported by their offsprings and the desire of living together with their offsprings male students were more highly than female students($P=0.000$).
3. The subjects who want to live together with their parents in the future desired more to live with their offsprings in the period of old age($P=0.000$).
4. As results of hypotheses verification about the awareness of supporting the elder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 law($P=0.001$), the receptive attitude toward the elderly($P=0.000$) and the desire of living with their parents in the future($P=0.000$)
5. In the correlations between all variables and the awareness of supporting the elderly, the economical and emotional awareness of supporting the elderly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 in-law and daughter-in-law and their parents' filial piety to grandparents($P<0.01$), and service awareness of supporting the elderly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age, sex,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and their parents' filial piety to grandparents($P<0.01$).

In the correlations between each of the awareness of supporting the elderly, the correlations between each one had high positive correlations($P<0.001$).

Key words : Elderly, Awareness of suppor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 law, filial piety.